

늘푸른물결

통권
262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7 2021



“슬기로운 지구생활 재활용품 이용 화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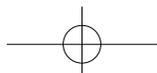
지난 6월 5일 2021년 환경의 날을 맞아 당진남산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품을 이용해 공기정화식물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화분을 만들어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차 례



"내년에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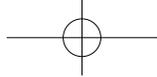


"석문호 주변에도 쓰레기가 많아요"

- ▶ 발행일 2021. 7.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1	1면
2	글 쓰는 순서
3	이달의 시
	백로 / 고찬규
4	지역환경초점1
	"내년에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6	지역환경초점2
	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7	지역환경초점3
	"석문호 주변에도 쓰레기가 많아요"
8	지역환경초점4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변경 추진 결정
9	지역환경초점5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개최
10	지역환경단신1
	당진 산폐장 갈등 해소될까?...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개최
11	지역환경단신2
	"지역 홀대론으로 서산민항 추진, 탄소중립 역행"
12	지역환경단신3
	"쓰레기·일회용품·플라스틱·화약 없는 4無 체전"
13	6월 살림살이
14	전국환경초점1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	전국환경초점2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18	석탄씨를 구해줘
	11화 당신도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20	6월 활동소식
22	7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백로

고찬규

밤새,
초승달과 풀잎은
날을 겨누고 있었다

서늘하다

풀벌레 울음 속에
한바탕
초승달이 쓸고 지나간
새벽 풀밭
쫄그리고
다초점 렌즈 안경도 벗고
가까이 더 가까이
고개 숙여 다가가는 내게
흰 풀잎
이슬 털며 날을 세운다

아무도 베이지 않았다



고찬규

1998년 <문학사상> 등단

시집 『숲을 떠메고 간 새들의 푸른 어깨』, 『핑퐁핑퐁』



“내년에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의날 기념행사, ‘재활용품 화분만들기’

지난 6월 5일 남산공원 분수대 광장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만들기 행사가 진행됐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사용을 높이기 위해 ‘슬기로운 지구생활 재활용품 화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0여 팀 약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날 행사는 시간대별로 20팀 이내의 참가자를 사전에 접수받아 신청시간대별로 참가 인원을 분산해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미리 안내한 내용에 따라 각자 가정에서 페플라ست릭, 유리 등 쓰레기로 버려질 재활용품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 왔으며 접수대에서 나눠 준 공기정화식물을 만들어온 재활용품 화분에 심어 아름다운 화분을 만들었다.

화분만들기 후에는 참가 부스로 진행된 핸드폰 그림톡 만들기, 다육이 심기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만든 화분은 시간대별로 모아 심사를 거쳐 5팀 내외의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시상품도 제공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이 홍보물품으로 지급됐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행사의 취지가 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글: 사무국 >





참가자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만들어온 재활용 화분에 식물을 심고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시상품을 받고 시상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6월 19일 당진상영회 개최



영화 시작전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개최됐다. 당진에서는 6월 19일(토) 오후 4시 당진문화원 공연장에서 당진상영회가 진행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을 비롯한 25명이 상영회에 참여해 영상을 관람했다.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서로 다른 여섯명의 감독들의 시선을 담은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상영됐다

상영작은 총 9편으로 '기후변화와 멸종', '기후변화와 육식', '기후변화와 소비, 탄소발자국',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애니메이션 4편과 '우릴 찾지 마세요', '달 닦기', '불가능한 미래 20-50', '기후시민3.5 아카이빙' 단편영화 4편, '전선을 따라서' 다큐멘터리 1편이었다.

영상제 상영작을 관람한 참가자들은 "애니메이션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쉽게 이해됐으나 단편영화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며 "나중에 아카이빙에서 제작의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단편영화 내용이 이해됐다"고 감상평을 밝혔다.

〈글: 사무국〉



"석문호 주변에도 쓰레기가 많아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6월 26일 진행



지난 6월 26일 석문호 주변에서 시민들과 물살리기 플로깅을 진행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시민과 함께 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두 번째 행사가 6월 26일(토) 오전 석문호 주변에서 진행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 비롯한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두 번째 플로깅 행사는 9시에 당진문예의 전당 옆에서 출발해 석문방조제 가운데 위치한 주차장에 도착해 시작됐다.

플로깅 참가자들은 먼저 석문호 쪽 제방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수거하였으며 이후 석문방조제 너머 해안가 돌틈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치웠다.

석문호 주변에서 진행된 두 번째 플로깅은 5월 첫 행사에 비해 학생 참여자들이 적은 반명 성인 시민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 두 번째 플로깅에 참석한 시민들은 "도비도 주변 첫 번째 플로깅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석문호 주변에도 쓰레기가 많아요"라며 "플로깅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상생재단이 주최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은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세 번째 플로깅은 한여름을 넘겨 8월 28일(토) 삽교호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글: 사무국 >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변경 추진 결정

당진환경운동연합 2021 임시총회, 비대면 회의로 개최



6월 22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 당진환경운동연합 2021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월 22일(화)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202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총 58명의 회원들이 ZOOM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원보고, 개회선언, 상임의장인사, 임시총회 개최 배경 설명, 안건 상정 및 회순 채택,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2021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및 채택, 정관 개정, 조직위상 변경 및 이전 결정의 건 총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됐다.

정관 개정의 건은 정관 제9조 총회의 기능 중 ‘조직의 위상 변경에 따른 단체 명의, 주소, 권리, 재산 등의 이전’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락되어 정관 제9조 7호 ‘단체해산 의결’을 ‘단체의 분할, 합병, 이전, 해산의 의결’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조직 위상 변경 및 이전 결정의 건은 두가지 주문사항으로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자산, 사업, 실무인력 등을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설립 후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에 500만원을 후원한다.’는 안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고 사단법인 설립 추진 및 법인 설립 후 이전에 대해 결정됨에 따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안에 사단법인 설립,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글: 사무국 >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개최

6월 22일 창립총회, 6월 30일 법인 설립허가증 수령



6월 22일(화)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6월 22일(화) 저녁 6시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창립회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장 선임, 출연내용 및 재정운영방안,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심의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는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김정진, 조순형 이상 5명이 이사로 선임됐고 이경희 회원이 감사로 선임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과 6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단법인 전환 추진을 논의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여 22일 2021 임시총회를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사단법인 창립총회는 당진환경운동연합 2021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창립총회 후 23일 주무부서인 충남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6월 30일 충남도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충남도의 법인 설립허가증 발급에 따라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법원에 사단법인 설립 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설립 후에는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의 결의 후 비영리민간단체인 현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재정 등을 순차적으로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 글: 사무국 >



당진 산폐장 갈등 해소될까?...공론화위원회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0일 고대면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당진시가 산폐장 갈등 관리를 위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0일 고대면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의 강의 <당진시 산폐장 관련 공론화 이해>

를 시작으로 △사업현황 설명 (송산 (주)제이엔텍 사업장, 석문 (주)대성에너지센터 사업장 현황)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의 목표는 △해당 산폐장에 대한 환경 및 주민 안전성 강화 방안 △해당 산폐장에 대한 시민참여형 감시 대책 △주요 이해관계자간 상호 불신 저감 및 해소 방안 △산폐장 사후관리 등 장기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그동안 불거졌던 불신과 소통 부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송산과 석문 사업 현황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부 시민들은 업체 측에 재무재정 관련 질의를 내놓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공론화 조건에 충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영업이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무재정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업체 측에서는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우리 회사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것”이라며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일부 시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결국 당진시 관계자가 “사업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며, 다른 의견 제시는 다음 토의 자리에서 진행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환경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 대책을 비롯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공론화된 내용을 두고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환경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원회 회의에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회의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당진신문 >



"지역 홀대론으로 서산민항 추진, 탄소중립 역행"

기후위기충남행동,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캠페인



지난 6월 10일 고대면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충남행동 회원들은 11일 오전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산민항 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피켓을 통해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서산 민항 반대', '공항 말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 정치권은 90년대 말 국가 계획안에 나왔던 수요예측에 기대어 서산민항을 끌고 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며 지역 홀대론을 깃발로 세워 서산민항 추진 분위기를 몰아가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200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며 "노동자와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 선언을 했다"며 "하지만 정작 탄소배출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항을 앞장서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스스로 선언한 비상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충남도는 기후위기 선언에 그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서산민항 추진부터 중단함으로써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청남도청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

2021-7 | 늘푸른물결 _ 11



“쓰레기·일회용품·플라스틱·화약 없는 4無 체전”

충청남도체육대회 부서별·유관 기관별 준비상황 보고회 29개 종목 당진 일원서 경기…당진은 약 570명 선수단 참가



지난 6월 8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당진시가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유관 기관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가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유관 기관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지난 8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개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소장 및 32개 부서장, 당진시체육회,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소방서, 유관 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체전 준비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체전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당진종합운동장 등 33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체전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이 통합해 열리는 첫 대회로, 29개 종목(채점 19종목, 비채점 10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당진시에서는 약 570명의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는 올해 체전을 ‘지속가능’ 체전을 위한 ‘4(쓰레기, 일회용품, 플라스틱, 화약)無’ 체전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제공했던 비닐봉지와 비닐방석, 야광봉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에코백과 텀블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화 채화 시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지속가능체전을 위한 주민참여 캠페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충남도민체전과 연계해 국화축제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당진종합운동장 앞 광장 일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단계별 대응대책 △성화 채화 및 봉송 △개·폐회식 공개행사 △숙박 및 환경대책 △자원봉사자 및 종사자 관리 △교통대책 △주차장 환경 조성 △의료종합 상황실 운영 △경기장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점에 대해 토의했다. 오는 9월 중에는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5년 만에 당진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인 만큼 가장 기억에 남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 체전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글: 당진시대 6월 15일자



6월 살림살이



2021년 6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6월 1일 ~ 6월 30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5월 이월금	13,877,599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5,915,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5,915,000	
후원금	일반후원	335,54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335,54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4,750,00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4,75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5,807	예금이자
	[항]집계	5,807	
월수입 총액	계	11,006,347	
수입 총액	계	24,883,946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437,62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362,5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193,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993,120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42,330	
	[항]집계	5,133,170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6,644,18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1,302,25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363,54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항]집계	8,309,97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100,000	
지출총액	계	14,536,260	

2021년 6월 잔액 10,347,686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펼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해태, 롯데, 농심, 동원의 주력 제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라는 요구에 해당 기업들이 모두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제과였습니다.

롯데제과는 문제가 되었던 카스타드 트레이를 9월 이전에 중

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은 해태제과.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홈런볼’의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체 재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제품 교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태제과는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다소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농심 역시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하겠지만, 품질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롯데카스타드, 동원 양반김, 농심 생생우동, 해태 훌런bul 모두 트레이에 담긴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동원F&B도 대표상품인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교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트레이 없이 생산되고 있는 ‘들기름김 에코패키지’에 이어, 2023년까지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면 정말 제품이 손상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진행한 ‘트레이 없는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와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이 수거 캠페인을 통해 환경연합 사무실로 트레이를 보내주시고, SNS로 플라스틱 트레이 문제를 공유해주시면서 이를 동력으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롯데제과의 경우 연간 350t의 플라스틱을, 동원F&B는 200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에 MB ‘녹색성장’ 개념 추가 가능성
“성장 담론으로 기후위기 대응 못 해”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6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칭)가 출범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달 뒤인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는 탄소중립위 법적 지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 과정, 방법 등을 담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넘기기 전 막바지 심사를 했다. -중략- 앞서 환노위는 지난 2월 말 공청회, 4월 말 전문가 간담회 등 법안심사 절차를 차곡차곡 밟았다. 녹색 성장이 살아났다 여야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법안 목적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녹색성장법을 보완하는 성격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중략- 이날 정부(환경부)가 환노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제시한 통합법안 이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병기한 것이다. -중략- 정부가 구상한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녹색성장을 4대 시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녹색성장 시책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녹색금융 △정보통신 △순환경제가 포함됐다.

왜 녹색성장 개념이 명칭은 물론 법안 주요 내용에 포함됐을까.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제1 야당 요구를 들어준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녹색성장 개념 속 ‘성장’



활용도를 높게 봤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가치다. 이미 죽은 권력(이명박)때문에 좋은 개념을 사장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녹색성장 개념이 대거 포함된 정부안을 두고 국회가 법안심사 속도를 내자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4명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녹색당·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관여한 여당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린워싱(녹색분칠)된 과거가 있다. 정부안 취지가 녹색성장 개념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은 친환경일까? 정부안은 ‘탈탄소기술’ 대신 현행 녹색성장법을 따라 ‘녹색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녹색기술 개념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장기 대처를 위한 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이런 배경에서 녹색기술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기술’과 ‘청정생산기술’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신에너지와 관련 기술이 ‘진짜 친환경’인지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나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해석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법을 지렛대 삼아 원자력이 주요 청정에너지로 각광받았는데, 청정생산기술이란 표현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석 정의당 기후정의위원장은 “석탄과 원자력을 이용한 가스나 수소 생산도 녹색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쪽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의 경우 촉매로 석탄을 쓰기 때문인데,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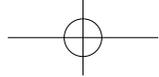
“성장 담론으로는 안 돼” vs “시간 없으니 일단 통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단추부터 채우기 힘든 이유는 녹색성장 개념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법이 제정되고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환경·에너지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이현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성장중심 담론,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담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현재 논의는 이런 논의가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제2의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성장을 해야 기후위기가 해결되는건지 따져봐야 한다. 기후정의와 녹색성장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탄소중립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전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자 현재 탄소중립위원인 안병욱 호서대 융합과학기술학과 교수는 “녹색성장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맞지만, 개발도상국을 위한 용어라는 점에서 한국의 기본법에 쓰는 것이 맞는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분에 사로잡혀 있으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안 교수도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만큼 과도하게 지원받는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큼 지원하고 있지 않다.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일부 발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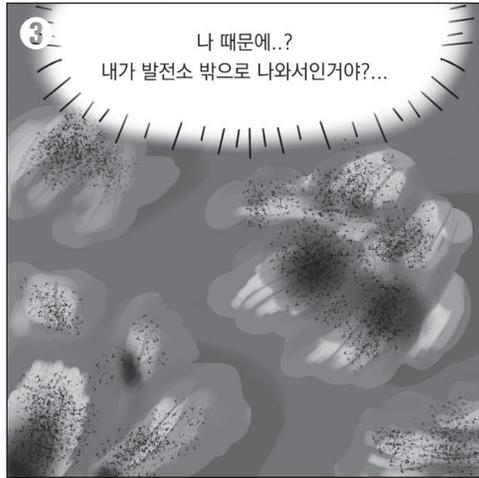
2021.7 | 늘푸른물결 _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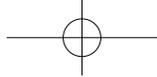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

당신도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1화)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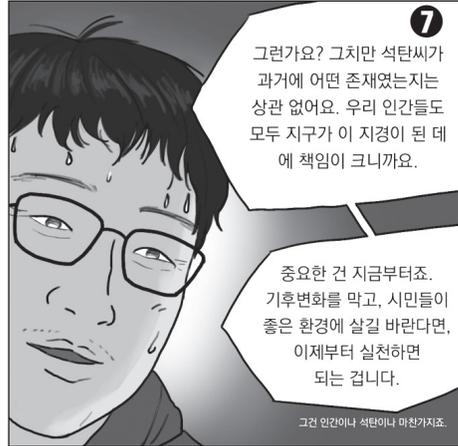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

당신도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11화



석탄발전 퇴출하자

김석탄이 알려주마

2017년 인천 영흥도에서는 "배추밭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 수확을 기다리던 배추들에 까맣게
석탄가루가 끼어있었던 사건이지.

근처의 영흥화력발전소와, 거기서 사용하는 석탄
을 쌓아두는 저탄장에서 날아온 거였지.
물론 인천만이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이런 일에 시름해왔지.

그런데 그동안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게 배추들
뿐이겠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입어
온 건강 피해는 훨씬 더하겠지.

10

환경운동연합
선명하기
GO GO
bitfy/no_cool

김석탄이 알려주마
2017년 인천 영흥도에서는 '배추밭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 수확을 기다리던 배추들에 까맣게
석탄가루가 끼어있었던 사건이지.
근처의 영흥화력발전소와 거기서 사용하는 석
탄을 쌓아두는 저탄장에서 날아온 거였지.
물론 인천만이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은 대부분 이런 일에 시름해왔지.
그런데 그동안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게 배추들
뿐이겠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입
어온 건강 피해는 훨씬 더하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6월 2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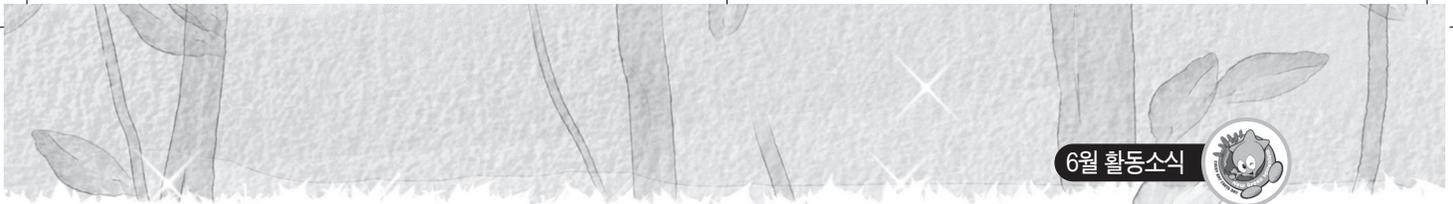
산폐장 대응 연대 간담회

6월 2일 세종시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산폐장 대응 연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개최

6월 10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2분기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6월 활동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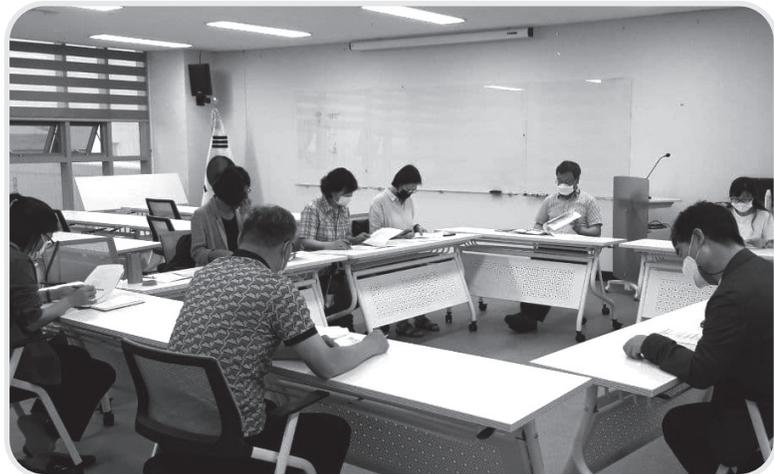


기후위기 영상제 당진 상영회 개최

6월 19일 당진문화원에서 "기후 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영상제 당진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영상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에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단편영화로 나뉘어 두시간에 걸쳐 상영하였습니다.

충남에너지전환 네트워크 회의

6월 23일 충남지속협에서 충남에너지전환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행사

6월 26일 30여명의 당진환경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으로 석문호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새내기 회원

이순영(읍내동) 이영우(천안시) 함효진(읍내동)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길찬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범석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승택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향근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성호 남정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대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승보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채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일영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라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는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세복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조현수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남기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오상 최완택 최운연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재혁 최종길 최주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홍성호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01 일반사업

- ❖ 7/01(목) 11:30 신서천화력 가동중단 축구 캠페인 - 신서천화력 앞
- ❖ 7/02(금) 10:00 탈석탄컨퍼런스 정의로운전환 세션 준비회의 - 충남지속협
- ❖ 7/05(월) 11:0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14:00 충남 물 통합관리 계획 수립 삼교호수계 물포럼 - 홍성J컨벤션웨딩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7/06(화) 18:30 7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7/07(수) 09:30 그린시티 관련 인터뷰 및 동행 취재 - 사무실, 당진화력
- ❖ 7/08(목) 14:00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온라인
- ❖ 7/09(금) 10:00 충남에너지전환포럼 - 충남콘텐츠기업진흥원
- ❖ 7/12(월) 11:00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 회의 - 온라인
14:00 충남 물 통합관리 계획 수립 서해계 물포럼 - 홍성J컨벤션웨딩
- ❖ 7/13(화) 10:00 충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단 회의 - 충남도노동자복지관
- ❖ 7/15(목) 15:00 지혜의숲 시민참여단 회의 - 미정
- ❖ 7/19(월) 14:00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 7/20(화) 18:30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회 회의 - 온라인
- ❖ 7/21(수) 11:00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 당진지속협
14:00 당진교육청 환경교육 비전선포식 - 당진교육청
18:30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사무실
- ❖ 7/22(목) 14:00 당진노인복지관 환경교육 - 당진노인복지관
- ❖ 7/27(화) 14:00 RE100시민클럽 충남발족식 및 정책토론회 - 충남지속협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7/27(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당진
시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당진시민 피해신고자
14명 (사망 5명)
피해구제 인정자
6명 (사망 4명)
(2021년 3월 현재)

빙산의 일각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품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에
동참해 주세요.

충청남도
병원치료 경험자
32,103명

충청남도
건강피해 경험자
38,859명

자료출처:
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조위와
환경산업기술원 공동조사 및
한국환경보건학회 논문

충청남도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364,808명
(1994년~2011년)

피해신고 및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